

2016. 1. 1 ~ 2016. 12. 31
<http://council.haeundae.go.kr>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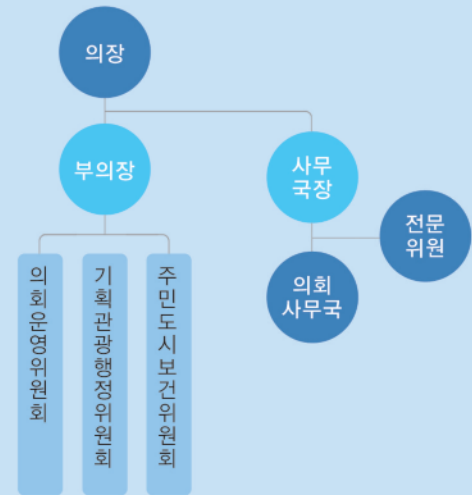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7대 의원현황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2016. 1. 1~2016. 7. 15)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 원 : 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직 원 : 17명



의장 이 문 환
Chairman Lee Moon Hwan



부의장 이 명 원
Vice chairman Lee Myung Won



임 말 속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Lim Mal Suk



황 병 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Hwang Byung Du



심 윤 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
Member Shim Yun Jung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서정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김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m Soo



유점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You Jum Ja



최영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Choi Young Gon



서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Chang Woo



조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Jo Young Jin



김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Jeong Wook



홍성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Hong Seong Un



오경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O Kyeong Mi



손유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hon Yu Jung



정성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Jeong Seong Cheol



서강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Kang Sik

HAEUNDAE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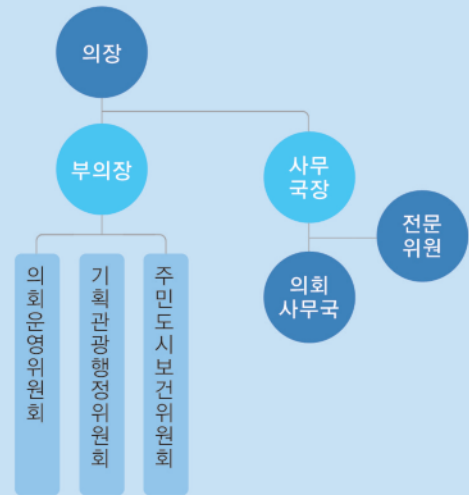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7대 의원현황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2016. 7. 16~2016. 12. 31)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 원 : 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직 원 : 17명



의장 정 성 철
Chairman Jeong Seong Cheol



부의장 이 명 원
Vice chairman Lee Myung Won



서 정 학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조 영 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Jo Young Jin



임 말 숙
주민도시보건의위원장
Member Lim Mal Suk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심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him Yun Jung



손유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hon Yu Jung



김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Jeong Wook



최영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Choi Young Gon



서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Chang Woo



서강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Kang Sik



홍성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Hong Seong Un



이문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Lee Moon Hwan



김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m Soo



황병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Hwang Byung Du



오경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O Kyeong Mi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You Jum Ja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ntents

해운대의정 HAEUNDAE COUNCIL

의원현황	02
인사말	08
해운대구 현황	10
의회연혁	11
의안처리	12
의원발의	20
구청질문	25
5분 자유발언	33
의정 스케치	58
의원칼럼	62



제 10호

2016. 1. 1 ~ 2016. 12. 31

발행인 의장 정 성 철
발행 해운대구의회
편집 의회사무국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Greetings by Chairman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장 정 성 철

43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속에 제7대 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잘한 일 보다 미흡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집행부가 구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그리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협력한 결과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그 동안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손 잡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비전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열린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호

2016. 1. 1 ~ 2016. 12. 31
<http://council.haeundae.go.kr>

The present condition of Haeundae Gu 해운대구 현황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수도 부산의 관광지로 신라말의 석학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자(字) “해운(海雲)”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는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 언덕, 해운대 온천 등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이 있는 사포지향(四抱之鄕)의 고장이며 관광의 도시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서 달맞이온천축제, 모래축제, 바다축제 등 사계절축제가 열리고 아쿠아리움, 요트경기장, 벅스코와 미술관, 갤러리, 추리박물관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이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중심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초고층 주거단지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인 제1, 2벅스코가 조성되어 있고, 휴양과 레저와 쇼핑시설을 갖춘 101층 해운대관광종합리조트와 IT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입니다.

지하철 2·3·4호선, 광안대로, 부·울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동부산권 교통물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 구 : 약 419,853명

면 적 : 51.45km²(부산 768.4km²의 6.7%)

행정기구 : 4국 1실 1관 21과 96담당 1보건소(2과2지소) 4사업소
18동, 의회

공 무 원 : 932명(공무원1인당 주민수 450명)

재정규모 : 5,297억원

제7대 해운대구의회 2014~2018

2016. 07. 16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6. 7. 16~2018. 7. 15) | 의장 : 정성철(鄭成澈),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4. 07. 16 제7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4. 7. 16~2016. 7. 15) | 의장 : 이문환(李文煥),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4. 07. 01 제7대의회 개원 2014. 06. 04 제7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6대 해운대구의회 2010~2014

2012. 07. 06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2. 7. 6~2014. 6. 30) | 의장 : 이안호(李岸鎬), 부의장 : 홍성운(洪性雲)
 2010. 07. 06 제6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0. 7. 6~2012. 7. 5) | 의장 : 라외순(羅外順), 부의장 : 윤병주(尹炳柱)
 2010. 07. 01 제6대의회 개원 2010. 06. 02 제6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5대 해운대구의회 2006~2010

2010. 01. 01 위원회 명칭 변경(기획주민행정 → 기획관광행정, 관광환경도시 → 주민도시보건)
 2008. 07. 05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8. 7. 6~2010. 6. 30) | 의장 : 안상호(安相浩), 부의장 : 정성철(鄭成澈)
 2006. 07. 06 제5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6. 7. 6~2008. 7. 5) | 의장 : 박선동(朴先同), 부의장 : 서강식(徐江植)
 2006. 07. 01 제5대의회 개원
 2006. 06. 30 위원회 명칭 변경(기획총무 → 기획주민행정, 사회도시 → 관광환경도시)
 2006. 05. 31 제5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4대 해운대구의회 2002~2006

2004. 07. 0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4. 7. 10~2006. 6. 30) | 의장 : 김용환(金容煥), 부의장 : 정장춘(鄭長春)
 2002. 07. 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2. 7. 10~2004. 7. 9) | 의장 : 김영수(金榮秀), 부의장 : 양철용(梁哲容)
 2007. 07. 01 제4대의회 개원 2002. 06. 13 제4대의원 선거(15명)

제3대 해운대구의회 1998~2002

2000. 07. 07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0. 7. 8~2002. 6. 30) | 의장 : 박정희(朴正熾), 부의장 : 허 훈(許 燾)
 1998. 07. 08 제3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8. 7. 8~2000. 7. 7) | 의장 : 정홍정(鄭弘政), 부의장 : 윤정춘(尹鼎春)
 1998. 07. 01 제3대의회 개원 1998. 06. 04 제3대의원 선거(14명)

제2대 해운대구의회 1995~1998

1997. 04. 12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 → 기획총무)
 1996. 12. 31 제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7. 1. 10~1998. 6. 30) | 의장 : 신중복(愼重福), 부의장 : 황준연(黃峻淵)
 1995. 07. 10 제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5. 7. 10~1997. 1. 9) | 의장 : 윤경현(尹慶鉉), 부의장 : 박정희(朴正熾)
 1995. 07. 01 제2대의회 개원 1995. 04. 12 제2대의원 선거(20명)

초대 해운대구의회 1991~1995

1995. 05. 29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 → 총무, 도시산업 → 사회도시)
 1994. 03. 10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산업 → 총무사회, 도시 → 도시산업)
 1993. 04. 13 초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3. 4. 15~1995. 6. 30) | 의장 : 최해주(崔海柱), 부의장 : 신중복(愼重福)
 1992. 03. 12 상임위원회 설치(총무사회산업, 도시, 의회운영)
 1991. 04. 15 초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1. 4. 15~1993. 4. 14) | 의장 : 이태옥(李太玉), 부의장 : 최해주(崔海柱)
 1991. 04. 15 초대의회 개원 1991. 03. 26 초대의원 선거(20명)

해운대의정

제10호
2016. 1.1 ~ 12. 31

의안 처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의안처리현황

○ 총 괄

구분	합계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동의안	건의·결의·추천안	규칙안	기타
계	111	59	4	13	5	3	27

○ 회기별 현황

회기별	회 기 (일수)	심의처리	
		조례	기타(조례외)
구 분	합 계	59	52
제217회 임시회	' 16. 02. 19. ~ 02. 22.(4일)	—	2
제218회 임시회	' 16. 03. 22. ~ 03. 29.(8일)	11	1
제219회 임시회	' 16. 04. 22. ~ 04. 28.(7일)	5	1
제220회 임시회	' 16. 05. 17. ~ 05. 27.(11일)	4	6
제221회 정례회(제1차)	' 16. 06. 20. ~ 07. 07.(18일)	4	6
제222회 임시회	' 16. 09. 01. ~ 09. 09.(9일)	7	11
제223회 임시회	' 16. 10. 05 ~ 10. 14.(10일)	6	5
제224회 정례회(제2차)	' 16. 11. 21. ~ 12. 22.(32일)	22	20

○ 조례심의 결과

구분		발의·제출			심의결과				기타 (보류, 철회 등)
		계	의원	구청장	계	원안	수정	부결	
계		59	16	43	59	54	4	1	4
조례	제정	17	8	9	13	11	2	－	3
	개정	41	8	33	45	42	2	1	1
	폐지	1	－	1	1	1	－	－	－



제217회 임시회

(2016. 2. 19~2. 22)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반여1-1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김삼수 의원)

제218회 임시회

(2016. 3. 22~3. 29)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 철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 철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유점자 의원)

기 타

-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219회 임시회

(2016. 4. 22~4. 28)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서정학,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의원)

제220회 임시회

(2016. 5. 17~5. 27)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최영곤, 유점자 의원)
- 5분자유발언(조영진, 서창우 의원)

기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동남권신공항 부산(가덕도) 건설 촉구 건의안
-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안



제221회 정례회

(2016. 6. 20~6. 30)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수영만지구)
- 우동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김삼수 의원)
- 5분자유발언(서정학, 오경미, 임말숙 의원)

기 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22회 임시회

(2016. 9. 1~9. 9)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
-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보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 2016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애인복지관)
- 2016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복합보육시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좌2동 문화센터 건립)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반여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서창우, 김삼수, 유점자 의원)

기 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해상 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23회 임시회

(2016. 10. 5~10. 14)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관광행정·주민도시보건위원회)
- 반송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 보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 보류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심윤정 의원)
- 5분자유발언(김정욱, 서정학, 최영곤 의원)

기 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안
- “신고리5, 6호기 건설 승인 취소”결의안

제224회 정례회

(2016. 11. 20~12. 22)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 · 기획관광행정 · 주민 도시보건위원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건학 및 안내에 관한 규정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 ·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유점자, 김삼수, 서강식, 서정학 의원)

기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업무계획 보고, 업무실적 보고
-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기획관광행정·주민도시보건위원회)

해운대의정

제10호
2016. 1.1 ~ 12. 31

의원 발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의원발의 의안(조례, 규칙) 현황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18회 임시회	김삼수 이명원 심윤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임말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제219회 임시회	서정학 김삼수 이명원 심윤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22회 임시회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제223회 임시회	서정학 외 16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손유정 임말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심윤정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서창우 심윤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임말숙 김정욱 손유정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24회 정례회	서정학 손유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오경미 서강식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황병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임말숙 손유정 서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주민도시보건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안	의회운영
	서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견학 및 안내에 관한 규정안	의회운영



김삼수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취지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재능기부자들에게 포상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취지 구정질문 등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됨에 따라, 구정 질문 답변자는 회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회의내용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상위 법령의 개정과 근거 조례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도시공원 등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취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임말숙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전자수입증지, 인증기용 증지 사용 등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보관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취지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주택법」제43조 제9항에 따라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지난 2015. 10. 1. 개정된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음

서정학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취지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유점자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

취지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손유정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취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심윤정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심의·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창우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공유재산 관리시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견학 및 안내에 관한 규정안

해운대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견학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오경미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안

해운대구의회와 외국도시 의회 간의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황병두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구청 질문



구청질문 현황

회기별	질문자	내 용
제220회 임시회	최영곤	○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기존 선거관리위원구성(위원장: 이복희)의 적법성 여부 민원요구에 관한 관련부서의 대응 및 처리과정 상 문제점과 책임에 관한 질문
	유점자	○ 청소용역 및 2016년 1차 추경예산안관련
제221회 정례회	김삼수	○ 신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심윤정	○ 구남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최영곤 의원

2016. 3. 10.
제220회 임시회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기존 선거관리위원구성(위원장 : 이복희)의 적법성 여부 민원요구에 관한 관련부서의 대응 및 처리과정 상 문제점과 책임에 관한 질문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해운대 각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구성과정 상 분쟁이나 민원 발생시 구청 관련부서의 감독이나 지도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범위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 따라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최소범위에서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이복희)의 문제점(민원내용)과 담당부서의 행정지도 내용은?

- 유사한 사례인 롯데 3차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행정지도 내용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해당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시행된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롯데3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2015년 5월 우리 구에서 선거관리원 위촉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 조합에 대해 부서가 자발적으로(기존 선관위 요청) 행한 4차례 공문요청(조합에 대한 입주율 50%상회사실 통보요청)과 본의원의 요청 및 명령에 의한 해운대 선관위 자문(아파트 선관위업무의 소관부서에 대한), 입주여부확인 정보요청(선관위 중 주민등본 미제출자-중2동에), 법률자문(선착순 모집과 주민등본 미제출로 구성된 선관위의 적법성여부)과 관련한 질문

- 줄곧 소관사항이 아니라 강변하였지만, 자발적이던 강제에 의해서든 위 모두가 과연 선거관리업무와 무관한 것인가?
- 조합(조합장 : 유희자)과 기존선관위(위원장 : 이복희) 간에 차등과 차별적 업무대응 및

처리를 하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조장한 잘못은 없는가?

선거관리업무 무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 당시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입주자의 과반수입주에 대한 통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과반수 입주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구에서 조합 측에 4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조합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한 바 과반수 입주가 확인 되어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들에게 과반수 입주사실을 통보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차별적 업무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합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시행된 사항을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이 있을 경우 확인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22.자 의회사무국을 통해 질의한 선관위 구성의 적법성여부 등 (실제 요구한 것은 적법성에 관한 자문변호사 의견서였음)에 대한 건축과3.25.자 제출한 답변내용은 첫째, 1.8.자 법원의 결정, 둘째, 관련규정(4개 예시)을 근거로 기존의 선관위구성(위원장: 이복희)에 하자가 없으며 또한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 건축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둘째, 4.1.자 법원의 결정, 셋째, 건축과의 기결정 및 관여 전례, 넷째, 상식의 판단과 추세(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다섯째, 또 다른 법률자문 의견서, 여섯째, 민원에 대한 적극 처리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위와 달리 직무회피 내지 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선관위 구성관련 직무회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해당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시행된 사항으로 우리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자문팀 3곳(박옥봉변호사, 법무법인 삼양, 법무법인 유석)의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 기존 선거 관리 위원구성(위원장 : 이복희) 적법성여부 자문에 관한 질문.

- 3곳 모두 법률자문에 응하였는가? 만약 자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 자문내용은 무엇이며, 자문의견을 토대로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였는가?
- 법률자문의견서의 공개(취득)를 거부한 근거는?(본 의원과 조합장에 대한)

자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문 3곳 중 2곳에서 응하였으며, 자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제수단은 없습니다.

자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3가지 쟁점사항(공고기간, 선정방법-선착순예정,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에 대하여 자문하였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참고를 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문의견서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의원 요청에 대하여는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 법원에 선거절차진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으로 재판에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를 비공개함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의 요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리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어 우리 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비공개 결정 처리된 사항입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기존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두 건의 가처분 소송(선거절차진행 방해금지 및 선거절차 진행금지, 대표자 : 이복휘)은 모두각하 처분 되었다.
 그 간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반대서명 : 약 900명) 그 지위를 고수하면서 고통과 분노를 더한층 가중시켰다.
 해운대구의원을 지낸 지역 유지이며 공인과 다름없는 신분으로써 그 책임이 적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구비 약2억 지원) 장산노인 복지관관장(회원 7,000명)과 해운대 각종 위원회 및 주민 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의향은?

장산노인복지관은 2011. 12. 23.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의안복지재단(대표이사 : 이복휘)에서 5년간 운영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장은 노인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장으로서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 점 자 의원

2016. 3. 10.
제220회 임시회

청소용역 및 2016년 1차 추경예산안관련

청소행정 엉망인 이유?
(원가계산 엉망, 용역엉망, 엉터리 원가분석)

2016년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검증용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청도	해동환경	신해환경	희망환경
2016원가	11,226,641	3,857,092	3,495,557	1,980,661	1,893,331
검증원가	10,479,962	3,851,194	2,773,094	1,969,482	1,886,192
증감액	△746,679	△5,898	△722,463	△11,179	△7,139
증감비율	△6.65	△0.15	△20.67	△0.56	△0.38
2015원가	10,423,783	3,703,840	3,420,798	1,828,378	1,470,767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원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매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4개사(청도, 해동, 신해, 희망)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음.

2016년 원가계산 산정 결과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커, 구의회에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 하여 현재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사(청도, 신해, 희망)의 경우는 검증원가 증감 비율이 당초 원가와 0.56%~0.15%로 오차범위내 이며 1개사(해동)의 경우 작업시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빠른 시일 내 재조사를 실시하여 마무리 예정임.

2016년 본예산 삭감된 예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연도 편성된 경위는?(재검증 최종용역 보고 완료후 결과에 따라 반영하기로 하였음)

2016년 본예산은 당초 10,842,720천원 요구하였으나 480,000천원 삭감되어 10,362,720천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구의회 요구에 따라 2016년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의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증액 편성요구 하여야 하나 검증용역 결과 도출이 늦어짐에 따라 1회 추경에 미반영시 12월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대행업체의 인건비 지급 등 운영 및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어 불가피하였음

검찰고발 의향이 있는가?(영터리계산, 임의계산, 속임수 계산)

2016년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및 검증용역 기관은 전문 연구기관이며 우리 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매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검증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용역 완료 후 관련법을 검토하겠음.

○ 원가계산 및 검증용역 기관 현황

구분	용역기관	대표자	주소	연락처
2016년 원가계산 용역	(재)한국자치정책연구원	손주환	경남 김해시 활천로15번길 25(부원동)	055-366-0336
2016년 원가계산 검증용역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	권철현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구서동)	051-583-3114

201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 민간위탁수수료>원가계산용역 및 계약관련은?

- 계약일자 : 2015. 12. 29.

일반용역표준계약서 금액 \ 10,362,720,000

계약관련 <2016년 본예산 300쪽 참고>

일반용역표준계약서 금액 \ 11,122,116,000

계약되어있음.(759,396,000) 소명자료 첨부

2016년 청소 민간위탁수수료의 계약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체결한 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20일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2016년 청소 민간위탁 계약현황

구분	계약일자	계	청도	해동환경	신해환경	희망환경
당초계약	2015.12.29	11,122,116	3,818,520	3,460,596	1,960,920	1,882,080
변경계약	2016.05.20	10,322,868	3,664,944	3,384,876	1,812,288	1,460,760

※ 2016년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본예산 : 10,362,720천원

- 소명자료 : 별첨



김삼수 의원

2016. 6. 30.
제221회 정례회

신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가덕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최근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의 정치권과 부산을 제외한 4개지역의 단체장들과 정치권의 의견이 마찰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근본 문제점과 가덕도신공항 유치 문제와 해운대구청 이전문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과 지방고유사무인 구청사 문제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2009년 2월 우1동, 중1,2동, 좌동, 송정동 지역 주민 1,669명이 참여한 신청사 이전 관련 설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당시 해당동 인구수 18만3천여명의 1%인 1,830명 중 1,66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청사와 인접한 우1동과 중1동 지역주민(상인)은 상권 위축 우려로 이전을 일부 반대했지만, 그 외 지역은 의료시설이나 복합시설 등 현 청사 주변 전체를 도시계획지정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방향으로 개발을 원하였고, 기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청사를 건립하지 말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구성되어진 신청사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동단위 900명과 산·학·연 전문가 그룹 100명 등 1,000명으로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0명의 대의원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2009년 4월 정부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위해 청사 신축을 보류토록 지침이 계속적으로 내려와 별다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당시 열린정원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신청사 이전관련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겠다 라고 문서로 보내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예비비는 높게 편성하면서 신청사 적립금을 1억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6년 본예산에 신청사 적립금으로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내 열린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100대 정원’ 중 하나인 구청 정원을 열린 공원으로 만들어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연출하는 한편,야외무대와 족욕장, 바닥분수 등의 설치로 주민휴식 및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 청사를 매각할 시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현 청사를 매각할 시의 금액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밝힐수는 없으나 부지면적이 8,621㎡이고 현재 공시지가기준 ㎡당 3,227,000원으로 280억원정도 예상되나 감정평가를 거친후에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할수 있습니다.

현 청사 이전 시 매각 비용과, 신축 시 건축비 및 이전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 지요?

기준면적 16,642㎡(본청 14,061㎡이하, 의회 2,581㎡이하)과 기준면적외 2,100㎡, 주차장 14,000㎡ 등 연면적 32,742㎡로 계획 시 조달청 공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기준 약 818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비용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포함하여 산출할 예정입니다.

현 청사 이전 시 매각 비용과, 신축 시 건축비 및 이전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신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매각비용과 공사비, 이전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복합 센터내에 일부 부서를 이관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과, 장, 단점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현재 복합센터 내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3개 부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부서만을 위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으며,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2016년 상반기 운영비는 334백만원입니다.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복지관련 부서는 상대적으로 복지관련 수요가 많은 반여·반송·재송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본청과 떨어져 있어 직원 간 업무공유 및 협의 등 다소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확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청사 부지 옆 도로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과 센텀중앙로에서 수영강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고, 수영강변대로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간에 추돌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사고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소 가속 차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주민안전 및 불편과 직결되는 시급한 상황이어서 도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관련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바라며, 신청사를 이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 따라 3년 이상 신청사건립이 보류되어 사업타당성을 재조사를 하여야하며,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건축규모 및 사업비 산정, 신축과 기존건물 리모델링의 비교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정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통과할 경우 공유재산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견공원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우리구에서는 동물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 36개소를 대상으로 반려견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미등록 포함 약 6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또한,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견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공간조성이 필요하여, 우리구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물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윤 정 의원

2016. 10. 14.
제223회 임시회

구남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3년전 완료된 구남로 정비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투입예산 : 400억원(보상 350, 공사 50)[시비40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확장사업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490m, B=12m→30m
- 사업기간 : 1994 ~ 2012(실공사완료 기간 2010)

새롭게 진행중인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용역포함)와 국시구비확보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경과

- '15. 4.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 '15. 4. 29 : 착수보고회 개최
- '15. 11. 5 :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협의
- '15. 12. 15 : 용역 중지(사유 :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16. 4. 20 : 교통체계개선 협의 완료(경찰청)
- '16. 3. 14 : 하부시설 포장패턴 디자인 직원 설문조사
- '16. 7. 30 : 구남로 우오수분리 및 도시가스배관매설 완료
- '16. 10. 12 : 최종계획(안) 및 추진계획 결정
- '16. 10. 현재 : 설계도서 작성 중
- '15. 4. 6 : 용역 착수
- '15. 11. 3 : 도시디자인 심의
- '15. 11. 27 : 중간보고 개최

○ 사업비 확보 현황 (확보액 : 6.8억원)

- '15년 : 4.8억원(특별교부세)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4.8)'
- '16년 : 2억원(특별교부금)

※ 미확보액(63.2억원) 확보계획

- '17년 : 본예산(20), '상권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 사업비(10)', 국·시비(33.2)

허옥경 구청장 시절 구남로 전반에 대한 검토(용역)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데, 중1,우1동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지하 주차장을 파고 그 위를 살리는 식으로 당장 보여주기 식의 사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으므로 제대로된 주민설명회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구 자체적으로 시행한 용역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수 있음.

해운대의정

제10호
2016. 1.1 ~ 12. 31

5분
자유
발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5분자유발언 현황

회기별	발언자	발언자
제217회 임시회	김삼수	관점의 차이가 시장을 살린다.
제218회 임시회	유점자	숯불갈비집
제219회 임시회	서정학	석대천 하천부지 주민에게 돌려주길
	심윤정	부산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신동아아파트 앞, 스펀지 앞 좌회전 폐지를 반대한다.
	유점자	신설 중앙버스차로(BRT) 좌회전 금지 '딜레마'
	손유정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좌회전금지" 절대반대!
제220회 임시회	서창우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촉구
	조영진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유감
제221회 정례회	서정학	길고양이 대책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오경미	시립미술관역 역명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임말숙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나서.....
제222회 임시회	유점자	왜래해충 동작그만
	서창우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점
	김삼수	주민은 구청을 찾는 맨 첫 번째 고객입니다.
	유점자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 예산편성
제223회 임시회	김정욱	체육공원부지 효율적 활용
	서정학	건강증진센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영곤	안전도시 해운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224회 정례회	유점자	자원순환 해운대를 위한 "1회용 우산비닐커버 사용안하기 문화운동"제안
	김삼수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서강식	공영주차장(소규모) 사업입지 선정에 대하여
	유점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서정학	만덕~센텀간 대심도 건설과 병행한 제2장산터널 연계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점의 차이가 시장을 살린다.

김삼수 의원

제217회 임시회 / 2016. 2. 22.



지난 1월 자녀들과 함께 제1회 정선 고드름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했는데, 모두 무료로 열렸습니다. 다만 체험권 대신 지역 상품권 5,000원을 구매하여 체험 장비를 교환한 다음 장비를 반납하면 상품권을 돌려주는 형식의 무료 축제였습니다. 부산에서 온 사람이 5,000원으로 정선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소비를 하고 와야 하는 것이지요. 인근 정선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토산품도 구입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식사를 하고 나니 제가 총 지출한 비용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5,000원을 쓰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역에서 쓰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선 군청에 확인을 해 보니 상품권 판매량이 4일간 약 5,000매, 현금으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0원 한 장이 정선군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보입니다.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10% 할인 대신 10%를 더 주었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0만 원권 구매에 9만 원을 받지 말고, 11만 원을 지급한다면 전통시장에서 10만 원 쓸 것을 11만 원을 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같은 결과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운대구 자체적으로도 실시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쿠아리움 연간 회원권의 정상 가격이 5만 8,000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픈마켓에서 특정 기간에 구매를 할 경우 4만 1,900원에 할인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라리 5만 8,000원을 정상적으로 받고,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주기로 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겠지만 그것을 받은 고객 또한 지역 상권에 1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운대 주변의 다양한 호텔들이 비수기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할인 대신 할인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다면 예전에도 한 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유료 출입장 제도를 실시하고, 입장료만큼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해운대 주변의 전통시장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작은 금액이 모여 큰 금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당장의 차이에 신경을 쓰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라는 의미로 작은 차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작은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다가올 해수욕장의 임대 시설부터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립니다.



숯불갈비집

유점자 의원

제218회 임시회 / 2016. 3. 29.



저는 오늘 우리 해운대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 보존에 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고향 산청에 근접한 진주에 80여 년 해운대역사보다 더 오래된 90년 전통의 진주역사가 있습니다.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곳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역사 매표소와 사무실 등으로 쓰여진 오른쪽 공간에는 숯불갈비집이 들어섰고, 대합실로 쓰이던 왼쪽 공간에는 생선구이 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이 옛 진주역사를 식당 임대를 주어 영업 중입니다. 3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숯불갈비집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의 첫 느낌은 코레일 측의 천박한 상업주의와 시 당국의 뒷짐 행정에 대한 허탈함이었으며, 진주시의 행정에 냉소를 보내며, 지방 행정의 미숙함에 동료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습니까?

해운대역사에는 진주역사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축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 역사의 간판이 내려지고,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0여 년 역사의 진주역사가 숯불갈비집으로, 해운대역사는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역사의 흔적은 한순간에 우리를 주변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역사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해운대역사와 청사포에 호텔 건립, 미포와 송정 간 4.8km 철길에도 미역 말리는 바다 내음은 사라지고, 돈 냄새만 폴폴 날리고 있습니다. 해운대역사와 철길은 지난 2014년 4월 13일 현 서병수 시장이 시민들에게 상업 개발이 아니라 시민광장으로,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협약서에 사인한 곳입니다. 이렇게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역사와 청사포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광장 주변은 고층 아파트 숲이 이루어지고, 천혜의 절경인 해안철길에는 놀이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운대역사 광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실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호텔 건립 절대 불가!’, ‘해운대역사는 해운대의 뿌리다.’, ‘고향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 슬프다.’, ‘절대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운대역사 부지의 호텔 건립은 건설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작품으로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시정이고 구정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화유산 쪽으로 정말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보존을 외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을, 보존의 가치가 높은 해운대역사와 철길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철도청은 매각 과정을 취소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원위치에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가치의 보존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를 읽어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알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합니다. 어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물려줄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 작은 역사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석대천 하천부지 주민에게 돌려주길

서정학 의원

제219회 임시회 / 2016. 4. 22.



저는 오늘 반송지역의 하천부지 점·사용과 관련해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송지역에는 반송로와 주택가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석대천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수영강까지는 지난 몇 년 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하천 주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석대천 생태하천은 도시철도 반송선 개통과 함께 반송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석대천에 개인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이제는 썸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 혜성병원 뒤편 하천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송동 756-255번지입니다. 이 하천부지는 아주 옛날부터 주민 이사열이라는 분이 가내공업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후 현재까지 몇 분의 점·사용자가 바뀌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신축한 건축 잔재물이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사유지와 경계를 분명히 해줄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 뒤편으로 갈 수 있는 하천부지를 연결하면 통학로가 가능합니다. 2번 참고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곳은 현재 중고타이어 매장으로 영업 중인 반송지역 마을입구 석대동 574-13번지입니다.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개인이 점유해 오면서 그동안 각종 영업행위와 불결한 관리로 반송동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보기 싫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점유자 간 지상권 매매가 있었다는 소문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 퍼져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지로 점·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썸지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개인이 점유해 온 석대천 주변의 하천부지에 대해 이제는 점·사용 허가를 중지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신동아아파트 앞, 스펀지 앞 좌회전 폐지를 반대한다

심윤정 의원

제219회 임시회 / 2016. 4. 22.



먼저 BRT 간선급행버스 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RT는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 통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지난 4월 11일 자 신문 기사를 보면 도시경제력 지표를 통해 본 부산은 시내버스 평균 주행 속도 시속 31km로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에 가장 빨라 1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지향 도시개발,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성공한 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부의 제도를 이식할 때에는 환경에 적합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우1동 해당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마저 몰랐던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BRT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인한 신동아 아파트 앞, 스펀지 앞 좌회전 폐지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긴 세월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해서 생활권이 단절되어 큰 고통을 받았던 우1동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좌회전 폐지안으로 진입을 막겠다니요.

BRT 도입으로 인해 두 곳에 좌회전이 폐지될 경우 해당 주민은 2km 이상을 우회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세 곳으로 분산되던 교통량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남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해운대여중, 해운대여고, 해운대관광문화고 등 학교 밀집지역으로 아이들 등하교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보다 더욱 문제는 어린이집 차량운행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 지역에는 가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코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부산시는 파악하셨는지요?

급하게 마련된 4월 19일 주민설명회에서 ‘용역 중이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제라도 성난 민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BRT 2단계 사업 좌회전 폐지안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또 서명을 받으면서 고생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동 주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신설 중앙버스차로(BRT) 좌회전 금지 ‘딜레마’

유점자 의원

제219회 임시회 / 2016. 4. 22.



지난 4월 21일 자 국제신문에 ‘신설 중앙버스차로(BRT) 좌회전 금지 딜레마’ 기사에 관하여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BRT는 한마디로 정체 없이! 빠르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서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으로 지하철 건설 비용에 비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못지않게 운행 시간이 정확하고 이용이 편리한 첨단버스 운용체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BRT의 시행은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보듯이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정착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작년 ‘생태교통 기획’ 전문가 좌담회에서 부산시 교통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BRT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BRT가 구축되면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우월한 입장으로 바뀐다, 교통정책에 일대 혁신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정책 추진은 먼저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정책의 실천에서 먼저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기차길로 인해 고립된 생활과 통행의 불편을 감수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재차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1동 주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4월 19일 오전 우1동 주민센터 BRT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시는 BRT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1동 해운대역사 뒤편으로 진입하는 기존 3개의 좌회전 진입로 가운데 두 곳을 폐지해야 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두 군데 도로가 폐쇄되면 병목현상만 가중시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수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좌회전 금지로 인한 통행, 생활불편”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1동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제시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이 먼저 되어야만 주민이 주인인 행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중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지 해운대구와 부산시는 해외사례 자료를 더 찾아보고, 현장조사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분명히 문제와 대안은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1동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좌회전금지” 절대반대!

손 유 정 의원

제219회 임시회 / 2016. 4. 28.



오늘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좌회전 금지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BRT, 즉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1동 신동아아파트 앞과 스펀지 앞 두 곳의 좌회전 금지 건입니다. 이 동네를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안 살아도 이미 자녀를 키우신 구민들은 이곳에 학교가 몰려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한 번쯤 다녀가 본 곳으로 주민과 외부의 대중교통 흐름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째 대중교통 버스노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번에 좌회전 금지로 영향을 받게 된 이곳은 16개의 공동 주택 아파트와 110개의 작은 빌라와 주택에 사는 1만 7,400여 명의 주민들과 6개의 초·중·고등학교의 5,000여 명의 학생과 출·퇴근 교사,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해운대의 가장 오래된 도서관 등 여기는 시간대별로 유입 이동 인구가 많을뿐더러 계절에 따라서 더욱 복잡해지기도 하며, 늘 바쁘게 살아가는 거의 65% 이상의 출·퇴근

직장인들로 인해 밤늦도록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부산시의 BRT 교통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해운대로에 BRT가 구축되면 버스 속도를 30% 가량 높일 수 있어 교통 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성교차로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 버스정류장이 57개에서 36개로 줄어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가뜰이나 좁은 도로가 이번 공사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을 감안해서 불편하지만 이해합니다. 해운대구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통 흐름이 개선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BRT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3차로 이상 주 간선도로에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기계공고 앞에서 스펀지 앞까지 들쭉날쭉한 좁은 도로가 중앙전용버스차로를 하고도 편도 3차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BRT제도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억제 정책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날로 늘어나는 승용차 인구를 과연 줄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극심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면 과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조사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말입니다. 이번에 BRT제도로 인해 좌회전이 두 군데나 폐지된다면 우1동은 그 사업, 그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사절이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 단계에서 충분한 민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금지로 인해 막심한 불편을 겪게 될 처지에 있는 주민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만 2,300여 명의 주민과 학생, 교사들의 하루 통행량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들의 불편을 무시하지 말아주시십시오. 신동아 아파트 앞과 스펀지 앞 좌회전 금지 조치안에 대해서 백선기 구청장님과 이문환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우1동 지역민의 뜻을 공감해 주시고, 직접 앞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실시 설계 용역 단계인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마지막 단계인 규제 심의가 시 경찰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교통시설개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좌회전 금지 결사반대에 우1동 27개 통의 통장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4,000여 명이 이미 서명했고,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설마설마하며 이렇게 호소하는 주민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탁상행정의 무심함을 염려해 주시고, 주민 생활의 불편과 비효율적이며 안전하지도 않은 좌회전 금지안을 중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효율성을 내세워서 사람이 뒷전으로 밀리는 정책과 제도는 안 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본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동의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사회적 약자인 많은 학생들과 여성, 노인 인구가 유난히 많으며, 40년간 동해남부선 철로 뒤편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터전입니다. 이 지역의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촉구

서창우 의원

제220회 임시회 / 2016. 4. 10.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양심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구의 예산 집행에 대한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해운대구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내용 중 세출 항목청소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의 청소행정과에서는 2016년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세출예산 108억 4,272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03억 6,200만 원으로 2016년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세출예산을 확정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해운대구의 청소행정과와 청소민간위탁 사업자와의 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청소민간 위탁수수료로 4개의 업체에 의회가 승인한 2016년 세출예산안 확정액 103억 6,200만 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7억 6,011만 6,000원을 증액한 111억 2,211만 6,000원으로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대체 111억 2,211만 6,000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금액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111억 2,211만 6,000원에 맞춰 4개월분이 지급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는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해이해진 근무 기강의 결과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 이런 행위가 관행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에 대해 문책보다는 관계 부서의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반드시 근절되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원칙을 벗어난 어떠한 일들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유감

조영진 의원

제220회 임시회 / 2016. 4. 10.



저는 작금에 해운대 구청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일명 개 공원 추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개를 충직하다 하여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면 대소변과 위생관리에 일정한 에티켓(Etiquette)을 지키는 등 의무를 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나고양이 등은 해운대 해수욕장 공원 중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타인에게 위해 요인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과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운대구는 반려동물 원동교와 왕자맨션 사이 공지에 주민의 뜻에 반하는 애완견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이 안에 관리 등을 건립하고, 애완견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옆에 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의 원동 역사를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이용 주민을 위한 연결통로 겸 광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1·4동은 6만 2천 인구에 왕자맨션 입구에서 풍산금속까지 고구마 형태의 일자형 편도2차선 도로로 애완견 만남의 광장, 가칭 애완견 학교가 조성될 시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한 일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반송, 재송 지역 주민들은 원동 역사 건립 소식을 듣고 크게 환영하며 기뻐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곳에 개를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를 건립하다니 과연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부산시 전용차로 개통 시 1차선의 승용차 진입불가 등 교통대란과 소음과 바람으로 인한 엄청난 악취 등 장기적인 면에서 인근 주민의 근본적 생활 불편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벌써부터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높고, 오히려 주민 편의를 위한 광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데, 민의를 적극 수렴해야 할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민의 이익과 공정성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리 돌려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민들의 반대 원성이 날마다 높아가는 실정이니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본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으로 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청취하여 올바른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지의 부적성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민 밀접지역이 아닌 석대 수목원 등 인근지역의 비교적 이용에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론 관광특화사업으로 함께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 볼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관계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머슴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구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목민관이 명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임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컨대, 본 의원의 간절한 건의를 한 의원의 편견된 주장이라고 일축하지 마시고, 반려1·4동 주민들 전체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청장님의 높으신 해안으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잘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본 사업이 주민여론에 반하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모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잘 사용되어 혈세낭비라는 원성을 듣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고양이 대책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서정학 의원

제221회 정례회 / 2016. 6. 20.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길고양이 때문에 놀란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끼 길고양이 세 마리가 잔혹하게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 이 고양이를 발로 짓밟거나 패대기쳐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주민 간 큰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내부 변압기에서 길고양이 감전사고가 발생해 수천 세대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기도 하였고, 지난해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은 초등학교의 철없는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지만 한때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길고양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동물의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잔밥통 및 쓰레기봉투 훼손, 발정기 울음소리로 인한 불쾌감, 영역 싸움 시 발생하는 과성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전파 등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이제 행정기관의 주요 민원 사항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전국 길고양이 100만 마리 시대, 과연 길고양이는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골칫거리 동물로만 치부하고 배척해야만 할까요? 반면 이러한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인도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 비율을 높여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길고양이 급증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거리 동물과 공존해법을 찾는 방안으로 길고양이 무료급식소인 '야옹이쉼터' 10곳을 지난 4월부터 부경대 용당캠퍼스 일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구청에 전화 한 통으로 즉시 방문 처리하는 찾아가는 길고양이 대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위에 포식 체계가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이른바 TNR(Trap, Neuter, Return)사업은 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성화가 되면 야생성이 사라져 울음소리로 인한 불편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면서 고양이 개체 수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질 일이 줄어들 것이고, 주변 위생도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길고양이 문제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급식소를 통한 먹이주기와 중성화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운대구에서는 길고양이와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길고양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급식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해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립미술관역 역명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오 경 미 의원

제221회 정례회 / 2016. 6. 20.



무더운 여름이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를 찾는 모든 분들의 도시철도 이용의 혼란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해남부선 우동역이 벅스코역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시립미술관역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와 편의를 위해 환승역 동일 역명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 벅스코는 국내 및 해외 방문객들이 찾는 랜드마크 시설입니다. 해운대구 주민 대다수가 벅스코역으로 역명 개정을 원한다는 여러 번의 주민설명조사를 통하여 동해남부선 우동역 역명이 지난 4월 벅스코역 역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시립미술관

역의 역명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두 개의 역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동해남부선의 영업 개시는 올해 10월에 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승역과 동해남부선의 역명이 하나로 일관성 있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에 시립미술관역 역명이 개정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명이 한 번 개정될 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 번, 세 번 개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역명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나서...

임 말 숙 의원

제221회 정례회 / 2016. 6. 30.



먼저 작년 5월 제2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해운대구의 공격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것을 수용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제219회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관광 홍보비로만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얼마나 도전적인 마케팅을 펼칠지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에서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 중 초과 세입금이 136억 원, 불용액이 228억 원입니다. 초과 세입금이 무려 136억 원이나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시세 분석이 잘못되었고, 또 불용액 228억 원은 당연히 추경에서 새롭게 재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너무 몸을 사리고 있음으로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경제와 달리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적용되는 공행정의 특성상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과 필수 경비를 뺀 나머지 전액은 당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 편의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 체납액 306억 5,600만 원 중 33억 7,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이월액이 272억 7,800만 원인데, 이 중 지방세 26억 4,500만 원을 제외한 246억 3,300만 원은 모두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이 중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146억 7,600만 원의 65%가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85억 7,900만 원으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를 찾아보니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한 여러 구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는 38세금징수팀이 2~3개 있어서 '38'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따서 똑같이 지었다고 하는데, TV에서도 실제 징수현장을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 구청은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아 그대로 할 수 없지만 부산의 인구가 가장 많고 예산도 많아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는 결산 심의를 할 때 관계 부서에 질의하고 제안했듯이 우리 구도 번호판 영치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단순 반복 업무로 세무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 직원으로 해서 2~3개의 조를 편성하면 인건비를 아끼고, 일자리 창출도 할 뿐 아니라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이 늘어 법질서도 세우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결산 심사 때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라며, 또한 최소의 예비비 편성과 정확한 분석으로 초과세입 불용액을 줄이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백선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왜래해충 동작그만

유점자 의원

제222회 임시회 / 2016. 9. 1.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백선기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에 좌동 및 그 주변 일대에 퍼진 흰불나방 왜래해충 피해로부터 구민을 지켜달라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폭염이 시작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 해충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각 곤충들의 성충이 산란을 할 시기이고, 온도가 높아 빠르게 부화해 잎을 가해하는 숫자도 봄철 1세대에 비해 엄청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돌발 삼림해충이 발생해 가로수와 공원 등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좌동 신시가지 일대에는 송충이와 같이 생긴 흰불나방 유충 피해가 올해에는 단지 내까지, 인근 공원 안까지 확산되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주 전부터 현재까지 본 의원이 피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구청의

노력으로 해충 방제약을 살포 후 다행히 신속하게 대처하여 다소 진정되었고, 도로변 가로수 피해 확산도 줄어들었으나 학교 및 아파트 단지 등에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흰불나방 애벌레는 작은 애벌레로 시작해 나무 전체의 잎을 갉아먹거나 흡즙해 성충으로 자라고 수목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인근 나무로 옮겨가면서 나중에 양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특히 흰불나방은 한 번에 500~600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왕성해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잎을 갉아먹고 있지만 잡식성이어서 먹이가 부족할 때는 풀이나 농작물도 먹어치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선기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해충 피해 규제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백선기 구청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충 피해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원성이 높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구청은 해충 피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해충 피해가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더 심해지는 상황이기에 내년에도 재발우려가 큼니다. 아파트 단지 및 춘천천 옆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전지작업을 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충 발생 및 확산 원인을 찾아내어 원인을 최소화하고, 구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신시가지의 아파트연합회와 공동 방역체계를 세우는 등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흰불나방 피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의회 의원임을 감안할 때 해충 피해 조기 규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서창우 의원

제222회 임시회 / 2016. 9. 1.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기대의 동생 말과 우리 해운대의 동백 유원지를 해상으로 4.2km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 mark)로 개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표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부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달콤한 명분을 사업자와 부산시가 한 목소리가 되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이 발표되자 부산의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환경파괴, 교통대란, 특혜의혹, 안전문제, 사생활 침해 등 개발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된 사업이라고 개발의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예정된 개발 수순을 밟아

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해운대와 부산시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과 함께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연 안전성 문제입니다. 4.2km의 거리를 해상에 단 3개의 지주만 설치하여 지주간의 거리가 최장 1,063m에 이르고, 높이는 100m가 넘는 케이블에 버스만한 35인승 케이블카 80대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동백섬을 방파로 하고 모든 안전성이 완벽하다며 침몰한 해상호텔을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지주간 거리가 1,063m에 이르는 케이블카의 와이어가 태풍이나 돌풍에 끊어지거나 케이블카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해안가 초고층 빌딩과 광안대교를 타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난영화의 한 장면이 실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둘째, 특혜 의혹과 환경 훼손입니다. 공공의 바다가 사기업의 사업장이 되고, 시착점과 기착점이 시행사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이곳에 상업시설과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이기대와 동백공원의 환경 훼손 또한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셋째, 심각한 교통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름과 주말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격 개발 중인 동부산 관광단지로 향하는 예측 불가한 교통수요와 2019년 준공될 엘시티로 인한 교통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된다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시정 접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요소입니다. 종착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마린시티 주민들의 거실과 침실은 케이블카 관광객들의 시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매일 호흡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우려와 걱정을 대변하여야 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해운대 주민들은 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만약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결과 우리 해운대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이 사업에 주민들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우리는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저지하여야 할 것이며, 마땅히 우리 해운대구 차원에서 부산시에 단호한 결의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은 구청을 찾는 맨 첫 번째 고객입니다.

김삼수 의원

제222회 임시회 / 2016. 9. 1.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도 고객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구청은 열린광장과 온천 족욕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 동별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위원 등 각종 단체원들을 초청하여 수일에 걸쳐 홍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께서 구청장에게 “열린공원과 온천 족욕장은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구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행사가 끝 난 후 주관 국장이 그 주민을 불러 “구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반송지역의 한 주민은 “반송 사람도 해운대구 사람입니다”라는 취지로 격한 어조로 발언을 하였고, 이에 구청장은 웃으

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해당 국장은 그 주민에게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주민은 면박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보서는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선서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입니까? 최근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까지 당한 모 고위 공무원의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 사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의 방향은 해운대구 주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몰려와도, 쇼핑센터에 하루에 수십, 수백만 명이 몰려와도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불편한 것입니다. 이제는 큰 구청이 주민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자신의 삶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도시 해운대’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기획하거나 결정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 예산편성

유점자의원

제222회 임시회 / 2016. 9. 9.



해운대구의 한 해 예산은 주민이 낸 구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데 정책적 사업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사업 항목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일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또는 집행을 설사 했더라도 아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전용되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처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식은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욕심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서의 예산 집행 기회를 가로막아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 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전 조성 중심으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불용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각 부서 간의 불필요한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특히 세입 산출근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경의 재원은 어디 입니까? 국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혹시 본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을 쪼개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거 추경 최소화, 예산의 법률적 기능, 입법부가 행정부에 재정권으로 부여하는 예산.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조례 심의 전에 선 예산편성, 심사도 진행되었으며, 청소민간위탁수수료도 청소용역 결과 보고 후 적정성 예산안 검토하기로 집행부에서 약속하였으나 용역결과 심의 전에 이미 이번 추경예산안에 무려 10억 원을 편성,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100쪽, 구남로 명품 거리조성사업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는 무엇하러 하며, 책자는 왜 만듭니까? 재할용분리수거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 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연례행사가 되었으며, 해운대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재정정책이 그만큼 구멍투성인데도 분석자료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해마다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산편성 방식은 두루뭉술하게 전년도 방식만을 답습하며 되풀이 되고 있는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태 등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목적도 없는 추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경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공평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효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기능을 전문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즉,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되지 않거나 자원조달 방안 없이 예산편성, 특정목적에 위한 기금, 칸막이를 많이 만드는 칸막이 예산 등 단기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점을 명심하여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차익금상환 등 예산 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예산편성, 정책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공원부지 효율적 활용

김정욱 의원

제223회 임시회 / 2016. 10. 14.



신공공관리의 선구자인 도널드 키틀(Donald Kettl)이 뉴욕 거버넌스에 접근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부는 촉매역할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권한 위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단순 행정관리보다는 임무 중심의, 미션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 4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의행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의 행정은 본 정부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 맞추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숙원사업을 창의행정의 해결방법을 제시 하면서 우1·2동 숙원사업인 우동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책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우동 산144-1번지입니다. 4만 3,000㎡이고, 소유자는 38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동 산144-1번지 토지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구민들이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청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우2동 체육공원 내에 40여년이 된 슬레이트 건물 3개 동이 있는데, 그 지붕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물질로 혼합된 철골슬레이트로 건립되어 있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가루가 비를 타고 바닥에 스며들어서 고여 있다가 바람에 날아 흩어짐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구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구민들의 체육공원 시설물들을 보수, 개량하고자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이 지역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시된 개인소유 토지로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슬레이트건물을 개축이나 교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16년 8월 5일 부산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석면지붕 개량 화급성 경고한 돌산마을의 석면쇼크’입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 주민 10명 중 1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는 조사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석면 피해자 인정 비율이 10.3%로 부산시 전체 인정률 0.9%의 10배가 넘는 수치이고, 146명의 주민들을 검진한 결과 15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제가 생각한 대책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므로 구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해부지에 대한 매입가능 여부와 재원조달 확보 등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후속적으로... 암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일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경우 구청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승인 후 반드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절차와 신청서류 매수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서...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정학 의원

제223회 임시회 / 2016. 10. 14.



저는 오늘 반송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에 건립된 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집행부 측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09년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영장을 비롯한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시설을 갖춘 건물로 준공되어 체육시설이 부족한 반송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사회체육센터에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당초 계약운영 기간인 2017년 5월 14일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건강증진센터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매년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건강증진센터에 당초 설계상의 오류와 지역

여건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설계상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3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천장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열효율이 낮고, 이용자 대비 넓은 샤워장과 온탕이 운영되고 있어 공공요금에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3층에 사용되는 수영장은 500여 톤의 물 하중으로 인하여 잦은 누수와 균열 발생으로 건물 유지관리비 또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건강증진센터는 월 이용자 등록수가 1,400여명 내외이나, 월 6,000여 명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등록자수 대비 3분의 2 정도의 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도 센터의 공공요금 지출은 2억 2,548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 7억 9,700여만 원 대비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위치한 반송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센터 이용자 중 할인 이용자가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증진센터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도 이용자 확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였지만 만족스러운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반송지역 인구감소 추이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용회원 확대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건강증진센터는 낮은 열효율과 과다한 공공요금 등 설계상의 문제와 함께 60%에 육박하는 할인 이용자와 반송지역의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히트펌프나 온수탱크 추가 설치, 샤워장과 온탕 시설 정비를 통해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운영적자 해소방안으로 시설이용료 조정, 이용료 감면금액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나은 시설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 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전도시 해운대,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영곤 의원

제223회 임시회 / 2016. 10. 14.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은 겉과 외형은 그럴 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에 쓰는 말이고, 또한 요즘 유행어로 자주 쓰이는 ‘뿔이 중한디’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부차적인 일에 더 치중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씁쓸하지만 이번 해운대를 강타한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해운대의 적나라한 실상과 허상에 적합한 비유의 말일 듯합니다. 연일 방송매체와 언론, SNS에서 모름지기 살기 좋기로 소문난 명품 관광도시 해운대가 쓰나미 한방에 수중도시로 변해 흥측한 공포의 회피도시가 된 모습을 우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보도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 ‘해운대’가 실체화 될 것이라는 소문도 떠돕니다. 자부심과 자량이 혼란과 분노로 변한 다수 구민들의 현재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이기에 해운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를 감시하는 의회가 일정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운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최근 몇 년간 지진·해일 관련 안전예산을 점검해보니 ‘다목적 저류시설’ 외 안전대비 예산이 미비하거나 전무합니다. 얼마 전 2차 추경 시 본 의원은 안전부서에서, 그리고 뒷날 구청장이 보낸 답글의 문자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자연재해 지진과 해일에 얼마나 대비하는지 모르겠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우리 해운대에 ‘더 멋진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을 우선해 줄 것과 안전부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구남로 명품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아무리 멋진 거리를 만들어도 강력한 해일에 초토화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며칠 뒤 지진이 발생하였고, 태풍으로 해안가 지역은 많은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한 예언력이 있거나 예견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소관 부서의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의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또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덴무, 볼라벤으로 수차례 실제적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가 집중된 수중도시의 오명을 갖게 된 마린시티는 이미 알려졌듯이 조망과 미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외형적인 팡창과 화려한 외관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동백섬 출렁다리사업, 송정해수욕장 쥘트렉사업, 청사포 하늘전망대사업, 미포 관광시설조성사업, 구덕포와 송정, 죽도 해양레저사업 등등의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해운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야심차게 거액을 투입하여 만든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가 준공 1년 만에 이번 태풍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과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는 어떠하였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아찔합니다. 그나마 공사가 지연되고 진행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관광시설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인명 손상의 흉기로, 흉물로 변하고 맙니다. 모두 다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중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대두된 만큼 규정 정책기조와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태풍, 지진, 원전사고 등시다발적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구 전반에 대한 안전대비책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그 출발은 안전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 재편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증액 예산은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해양대피훈련장과 거점별대피소, 원전사고의 예방비용 및 해안가 피해지역의 확장된 방파시설 건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3만 해운대구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해운대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해운대호 책임 선장인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해운대가 보다 사람살기 좋은 안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의회 모든 의원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이를 열심히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안전도시 해운대의 시작을 연 구청장으로, 그리고 이를 열심히 뒷받침하는 의회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원순환 해운대를 위한 “1회용 우산비닐커버 사용안하기 문화운동” 제안

유 점 자 의원

제224회 정례회 / 2016. 11. 21.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최근 급속히 확산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특히 그중에서도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 오는 날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말입니다. 최근 대형 건물이나 식당, 가까이 있는 우리 해운대구청사에도 비 오는 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고,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그리고 해운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가능한 줄이고, 자원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정책을 주요하게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 건물에는 비 오는 날 건물 입구에 대부분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비치하여 민원이나 또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원순환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정책과 모순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의 폐해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매년 약 1억 개의 우산비닐 포장지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의 주성분은 폴리에틸렌입니다. 석유화학제품의 한 가지 성분으로 우산비닐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매립돼서 썩는 데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되어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우산비닐 커버를 매립하지 않고 소각할 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발생하여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플라스틱과 비닐을 먹잇감으로 알고 해양생물이 섭취하여 현재 수많은 바다 생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회용 비닐 사용은 환경적 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직접적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산비닐 커버와 같은 일회용 제품의 사회적 확산은 국내 자원순환정책에 모순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환경과 자치연구소가 300명의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비 오는 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가 87%, ‘아니요’가 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건물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 ‘환경오염 발생과 자원낭비이다.’가 63%로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또한 시·구·군청 등 공공기관의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 정책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에 61.6%의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빗물이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가 갈까 봐...’가 45.9%로 나타났고, ‘설치되어 있어서 당연히 사용한다.’는 시민들도 3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비 오는 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 안 하기 문화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보습비 등이 내릴 때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산을 잘 털어서 사용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정 불편하다면 현재 서울시청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산털이 기계를 구청사에서 시범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 해운대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 자원순환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해운대를 위해 해운대구청에서 먼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안 쓰기 문화운동 캠페인’을 시작하여 해운대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김삼수 의원

제224회 정례회 / 2016. 11. 29.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974년 8월 8일에 있었던 미국의 제37대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연설은 제가 이 나라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이 집무실에서 행하는 37번째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생활을 통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것이 최선의 국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워터게이트의 길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출해 준 대통령직의 임기를 마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의회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는 한 저는 그 헌법 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그 절차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장차 위험스럽고, 불안정한 전례를 만들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사라지게 되자, 저는 이제 그 헌법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절차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될지라도 끝까지 의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 및 그 밖의 지도자들과 논의를 한 끝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척 어려운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없는 번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내 개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몇 달씩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그곳에 거의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오 뒤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포드(Gerald Rudolph Ford Jr)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2년 전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앞선 연설을 끝으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이라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으로 인해 수많은 헌법 조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집회 현장에서 사회자가 헌법 조문을 하나, 하나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이제 그만 모든 시름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국가 최고의 권력자로서 연일 매스컴이나 국민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기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되셔야 할 분께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 저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또 그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잘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먼 훗날 역사에서 길이 기억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건의를 드려봅니다.



공영주차장(소규모) 사업입지 선정에 대하여

서강식 의원

제224회 정례회 / 2016. 12. 9.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요지는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부서 공히 모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입지선정, 예산집행까지 좀 더 객관적이고, 형평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분발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적어도 우리 해운대구만은 우리 주민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나가자는 뜻에서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집행부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좀 보여주십시오.

(P/T자료)

여기에 18개 동의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과 퍼센티지, 그다음에 세대수, 또 차량 등록사업소의 2016년 11월 30일 현재 차량 등록대수, 그다음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반여2·3동만 좀 보겠습니다. 면적은 구의 2% 정도 됩니다. 반여2동도 1km²,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약 13만평 정도 되는 지역에 한 1만 2,000세대가 살고 있고, 차량 보유대수는 8,200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수는 모두 합쳐서 1,800면 정도가 돼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지역이 반여3동의 9동하고 6동 블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차장이 없어서 직각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반여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은 반여초등학교 출입구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은 부서는 다릅니다. 2014년도에 좌동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에서 보상한 내용입니다. 좌동의 887번지 대지 222m²에 공시지가가 183만 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는 359만 원이고 공시지가 대비 196%를 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시장 공영주차장을 2015년도에 감정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필지 외에 6필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필지가 1380-8번지입니다. 약 368m²에 공시지가가 168만 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는 526만 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약 313%를 보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앞의 그림에서 보셨듯이 주차장이 복잡한 지역의 한 필지를 감정한 보았습니다. 반여동 1592-22번지, 대지는 약 100평으로 331m²입니다. 공시지가가 92만 8,000원,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132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142%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부서와 교통과는 보상가가 비싸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아마 지주한테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이 지역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반여초등학교의 벽면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의 그림과 감정가를 보셨듯이 합법성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조금 비싸도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백선기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정책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유점자 의원

제224회 정례회 / 2016. 12. 9.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추운 계절입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서 기초보장, 보건의료 등 복지영역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개별 급여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대책을 표방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주거급여와 긴급복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은 제도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수급 빈곤층이 재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심층 면담하여 당사자의 관점에서 빈곤의 현상과 그것이 발생하는 인과적 조건과 사회구조적 맥락, 그리고 생존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론화한 서강대학교 이정기, 김윤영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수급

빈곤층은 결박당한 개인상황에 처해 있으나 제도적 장벽에 의해 공공부조에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비수급 빈곤층은 경제적 악화로 만성적인 빈곤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빈곤은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취약함은 다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셋째, 비수급 빈곤층이 처한 빈곤의 현상은 개인적 노력의 영역을 넘어 이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낮은 소득은 불안정한 근로조건, 불충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한계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빈곤현상과 사회적 단절은 지역사회의 도움, 또는 종교적 위안을 통해 완화하는 한편 취약한 가족 기반은 빈곤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의 부양 의무가 기준이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비수급 빈곤층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비수급 빈곤층이 취하는 행동전략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육체적으로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필수적인 생활자원을 쓰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줄이는 등 비인간적인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는 적응 행동을 보입니다. 개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제도,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급요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부의 얕은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지원규정에 맞는 공공지원과 지역 내 민간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집중한다, 복지 취약자, 은둔자들에게 주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시면 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알려주는 이웃을 배려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요즘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에 다음 차편이 언제 도착하는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던 시절에 비하면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 싶습니다.

사람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도 등장했을 텐데요, 도착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기계의 활약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기도 하지요. 역시 무엇을 사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어디쯤 오고 있는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덕~센텀간 대심도 건설과 병행한 제2장산터널 연계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정학 의원

제224회 정례회 / 2016. 12. 22.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가는 해운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1일 자 제2장산터널의 필요성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해운대의 교통 문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 머지않아 교통대란이라는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01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 LCT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장군에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가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하루 평균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해운대 도심을 거쳐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계획 중인 만덕~센텀 간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는 종점이 수영 강변도로 신청사 부지 주변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대심도를 통해 쏟아지게 되면 센텀지역과 올림픽교차로 부근의 교통 정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해운대로를 비롯한 해운대 도심 전역이 교통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십수 년간 해운대와 인근 기장군의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해운대 지역의 교통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만덕~센텀 간을 연결하는 대심도 출구가 해운대 도심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해운대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동부산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책이 제2장산터널이라는 사실은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인정해 재논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덕~센텀 간 대심도 종점에서 올림픽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동부산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2장산터널의 건설 계획은 대심도 계획과 함께 반드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동부산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제2장산터널 건설을 추진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부산시가 제1장산터널을 혼잡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에서 서부산권에 대해 많은 행정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이때 부산시의 사업추진 의지와 정부의 결정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운대구민의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해운대구의회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해운대의 미래 교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건의문 채택과 함께 구민 여론형성을 통해 제2장산터널 건설 계획이 부산시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HAEUNDAE-GU COUNCIL 의정스케치



◀ 해운대의회 본회의



▶ 의회운영위원회



▲ 특별운영위원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충렬사 참배



▶ 치안정책설명회



▶ 울산 애견공원



▼ 신공항 건설결의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걷기



▶ 해수욕장 격려



▲ 좌동교통사고현장 애도



▶ 환경정화활동

HAEUNDAE-GU COUNCIL 의정스케치



◀ 하동군의회 방문

▼ 해운대소방서 방문



▲ 해운대교육청 방문



▲ 해운대경찰서 방문

▼ 영등포구의회 내방



▶ 합천군의회 내방



▼ 담안골 시찰



▶ 파라냐케시 내방



▶ 해상 케이블카 반대 결의



▶ 태풍차바 피해복구활동



▲ 관광시설 사업소 시찰



▲ 국내연수(정선)



해운대의정

제10호
2016. 1.1 ~ 12. 31

칼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



김삼수 의원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최근 부산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 유치일 것이다. 이 건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기도 하였고, 유치 추진위원 대표들은 대규모 집회와 식발식도 진행 하였다. 본의원 역시 집회에 참여하여 작은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지정한 ADPI는 밀양과 부산 둘 중 한곳이 아닌 두곳 모두의 손을 놓아 버린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 주고야 말았다. 발표 당시 용역사의 팀장은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부와 부산광역시의 문제 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운대구로 축소시켜 보자. 해운대구 역시 구청의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를 지역의 인사는 당선 되면 당장 이전하겠다고 했고, 해운대갑 지역의 인사는 이전대신 터널 등 대안을 찾아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특정 정치인들의 이런 논리로 흘러 가야 할 것인가 부터가 의문이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전관련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구청질문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내 놓고 있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언론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용역을 실시 한다고 한다. 과연 이 것이 용역을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왜? 이미 해운대구는 재송동 센텀초 맞은편 부지를 10여년 전에 이미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전을 위한 적립금이 약 74억여원(이자포함)정도 된다. 이에 현 청사의 공시지가가 약 240여억원 정도 되나 대략적인 매각 예상가는 주변 부동산에 문의 해보면 나오겠지만 약 500억 이상이다. 건립비용이 대략 800억 정도 소요 된다고 보면, 국.시비 150억 정도면 가능한 사업이다. 이것을 다시 용역을 통해 원점에서 재 검토 한다는 것은 재송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미 과거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의, 건축심의 심지어 풍수학적 검토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무슨 용역을 또 한다는 말인가?

가덕 신공항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해운대는 이미 신청사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지 정치 논리로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해운대] 하면 대부분 화려한 건물들과 쇼핑센터, 해수욕장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운대의 관문역할을 하는 반여동, 재송동은 어떠한가? 그리고 반송은? 이들도 해운대의 절반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원래의 약속대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 청사 주변의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다. 하지만 현 청사 부지에 구청보다 훨씬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시설이 들어 온다면 오히려 상권은 더 발달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청사주변 상권은 해수욕장으로 인해 활성화 되는 상권이 지, 구청으로 인해 활성화된 상권이 아니다. 현 청사주변 상권 붕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재송시장을 한 번 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과연 이것이 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곧 있으면, 해운대 경찰서도 이전을 한다. 경찰서 역시 현 청사 재건축이나 신축이나를 놓고 고민하다 현 청장 전입 후 신축으로 결정해서 추진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 청사는 재건축 할 경우 임시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에 대한 예산은 고스란히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해운대구청도 더 이상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재송동부지에 신축할 것을 주민으로써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해운대구청 이전은 주민과의 오래된 약속이다.



서강식 의원

거짓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짓말이 있는가?

피식 웃으면서 믿지 않는 거짓말은 있는 것 같다.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측이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 이를테면 노 처녀가 시집 안간다고 딱 잡아떼다거나 그저 일찍일찍 죽어야지 하는 말은 노인네들의 입버릇이다. 마지막 거짓말은 장사꾼이 장사가 안된다거나 한 푼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짓말인 것 같다. 우리네 사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십계명 제8조에는 너는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훈계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십중금계(十重禁戒) 네 번째에 거짓말 말라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다. 불교나 그리스도 교나 거짓말을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의 공인된 거짓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에게도 공인된 거짓말이 있듯이 사람 사는 동네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함부르크 게비스 연구소가 거짓말에 대해 연구 조사한 결과가 흥미롭다.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만 있다면 남자는 74%, 여자는 82%동의했으며 두 번째,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남자 46%, 여자 4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세 번째, 남자44% 여자37%가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 손해보지 않을 경우 거짓말을 해봄직 하다고 한다. 또한 우리네 부부관계에서는 거짓말이 어떠한지 자꾸 접하는 말들이지만 흥미롭다. 사회학자 베르너 하버엘박사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언제 어디서든 진실을 털어놓아야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41% 그렇지 않고 조금 속여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람이 59%라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여자가 쇼핑을 하고 남편한테 물건 값을 낮추어 말한 경우가 32%를 차지한다고 한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부 모두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백%가 굳게 입을 다물고... 완벽한 거짓말...

또한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도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인심한번 후한 것 같다.

불문곡직(不問曲直)

스파르타인은 참형(斬刑)

페르시아인은 화형(火刑)

모기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날 이른 아침 문득 떠오른 거짓말들이다.



서정학 의원

동물보호와 복지,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19회 임시회 때 ‘길고양이 대책,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였다.

길고양이 문제가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구청)측에 요구하는 것이 ‘5분 발언’의 주요 골자였다.

또한, 본 의원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이른바 TNR 사업 시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급식소를 운영하면 배고픈 고양이들이 주택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중성화는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에서 길고양이 관리대책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동물보호전담팀도 신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와 급식소 운영 계획이 반갑고,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보호법 홍보 강화, 반려동물 놀이공간(애견놀이터) 조성 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반려동물 신산업 활성화 정책과 동물 관련 산업의 행정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의 발 빠른 대처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무릇 동물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 또한 살 수 없다. 인간은 생태계라는 경이한 생명의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가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활동은 물론,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운대’를 만드는데 구민 모두가 함께 나서주기를 바라본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HAEUNDAE GU
COUNCIL**

해운대구의회는

의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 참여를 위해 모든 의회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과 더욱 더 완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청안내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안내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구의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원 안내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성명 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행처 해운대구의회 **발행인** 의장 정성철 **편집** 의회사무국

612-7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TEL** 051. 749. 4091 **FAX** 051. 749. 4099 <http://council.haeundae.go.kr>

